

詩誌

종 소 리

제 105 호

2026 년 1 월 신년호

시지

종 소 리

105 호



2026 년 신년호

(105 호)

차 례

스승님께	허 옥 녀 (4)
《예》라고 했어	리 유 실 (6)
힘껏 뛰여라	리 일 렬 (8)
멋쟁이	강 명 숙 (10)
시화에게	박 태 진 (12)

ㅈ ㅊ ㅅ ㅊ ㅊ ㅊ / ㅈ ㅊ ㅂ ㅊ ㅊ ㅊ ㅊ ㅊ ㅊ ㅊ

나뭇기거라	진 승 원 (15)
빛나라 니시고베 ! (가사)	심 달 야 (18)
교과서 고향집에서	김 성 철 (20)
선달이면 하게 되는 말	서 정 인 (22)

땡그랑소리 들을 때마다	김 명 혜 (24)
장하다, 동포사회의 기폭제들 !	강 명 세 (26)
응원기발	채 덕 호 (29)
아버지의 용돈	김 애 미 (32)
비행장의 오각별	김 려 우 (33)

$$x \perp o \perp s \perp e \mid x \parallel b \parallel h \neg o \perp h \perp$$

설날	김 윤 순 (36)
청춘이 가는 길	김 진 성 (38)
스승의 뜻	양 금 녀 (41)

$$*\text{후기}* \quad (44)$$

스승님께

허 옥 녀

스승님 !

《조선문학》 7 호에 올려주신 글
《애국의 붓을 놓지 않은 로시인에게》
놀라움과 감격속에 받아보았습니다

헤여진지 어느새 서른해가 지났건만
이역에서 찾아간 이 제자를
아직도 잊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창작강습의 나날은 비록 짧았어도
스승님께서 배워주신 귀한 말씀들은
언제나 내맘의 길잡이가 되었답니다

단어 하나 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시줄에 생명을 부어주신
배움의 나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어려움앞에서도 신념을 잃지 말고
이역에 살아도 조국을 안고 살라하신
스승님의 말씀 잊은적 없었습니다

벽에 부딪칠 때마다 가슴에 짝 찬것은
조국위해 한몸 바치던 인민들의 모습
래일이 더 좋을 어머니조국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남의 나라 이땅엔
몹쓸 광풍이 휘몰아치고있습니다

하지만 선대들이 피로 지킨 조국을
목숨처럼 귀중한 우리의 말과 글을
어찌 또다시 빼앗길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해도
환희에 넘칠 상봉의 그날 그리며
애국의 붓대를 더 높이 들립니다

《예》라고 했어

리 유 실

오늘 우리 아들이
《예》라고 했어

신입생 하루등교날
선생님 이름 부르셨더니

바로 《예》라고 했어
씩씩하고 당당하게

평소에는 일본 보육원
달 한번 유치반 하루등원

삼년이면 우리 아들
마음까지 변했다네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말도 모른다고

안 가겠다 보채던
날도 있었건만

언제나 두팔 벌려 기다려주는
정답고 따뜻한 동포사랑에

오늘에야 꼭 보답하리라
《예》라고 했어

힘껏 뛰여라

리 일 렬

올겨울도 왔구나 손자손녀들
찾아오면 온 집안이 운동회
꼬맹이들이 방안을 달린다

갓 두살이 된 막내손자도
형님,누나들 따라잡으려
짱충거리며 뛰여간다

그러다가 《앗!》
휘청거리며 엎어졌네
깜짝 놀란 형님,누나들
막내곁에 슬금슬금 다가갔지

그랬더니 울상을 하던 막내가
갑자기 히죽 웃었네
순간 온 집안에 울려퍼진
아이들의 대폭소

다시 시작한 운동회
엎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언제
다시 일어나 시작하면 될거야

무럭무럭 자라거라
어제까지 아장아장 꼬맹이가
봄이 오면 반짝반짝 유치원생

꼬마야,
다음에는 이 할배와 함께
우리 학교 운동장을
힘껏 뛰어보자

-준비, 《땅!》

멋쟁이

강 명 숙

막내동생 자전거는 새빨간 자전거
학교에선 보기 드문
바구니 없는 모양이라
주륵장에 서있기만 해도
모두들 한눈에 그 주인 알아본다네

그러나
눈으로는 모르리
자전거의 멋을

정다운 우리 동무 보러 갈바엔
가뿐한 마음처럼 발디디개도 가벼우라고
험한 산길 거뜰히 달린다 하는
1 등급 부분품 모아
우리 아버지 손수 조립하신 자전거

새벽이든 저녁이든
멀리서도 잘 보여라

자식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아버지마음 그대로 비긴 색깔
화려한 빨간색

언제 봐도 새것처럼
반짝 빛나는 까닭은
일요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정성껏
손질하고 또 손질하시기때문

그 사랑을 아는건지
아버지 량만을 아는건지
오늘도 내 동생은 치마자락 날리며
빨간 자전거 몰아간다
우리 학교로 달려간다

사랑어린 자전거는
네 가는 길마다 지켜주리니
동생아
이역의 배움길 씩씩하게 가고가서
참다운 멋쟁이로 자라나렴

시화에게

박 태 진

스무살을 맞는 모임에
축하메세지 써달라는
조청위원장의 부탁에
이렇게 펜을 들었지

너의 입학원서를
가져오신 우리 선생님
인원수가 적다고
마음 쓰시던 날이 어제일같아

시화야
새 입학생이
두명, 아니 단 한명이라도
아빠 하나도 걱정 안했어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탐내지도 않았어

언니, 오빠들이 친형제가 될줄 알았고

선생님들이 때론 친부모가 될줄
아빠 알았으니까

해님도 바람도 무지개도
언덕의 꽃들도 운동장의 개미도
모든것이 너의 친구로
너의 스승으로 될줄 알았으니까

단 하나도 걱정 안했어
만일 서운한 날이 생긴다면
친구가 되어 놀아주리라 생각했지
만일 외롭다면 밤새껏 얘기 나누리라 생각했지

근데 시화야
진심은 어땠니?
너의 속마음 깊은 곳
아빠는 봐줄수 있었을가

언제나 웃음만 주던 너
단 한번의 하소연도
눈물도 안 보인 너였기에...

러행 한번, 공원 놀이터조차
제대로 못 데려가준
자랑거리 하나 없는 아빠야

하지만
아름다운 치마저고리를 입고
당당히 우리 학교에서 성인식을 맞는 네가
아빠 더없이 자랑스럽다!

나뭇기거라

진 승 원

하늘은 푸르다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가을 체육대회날

경기장이 좁다하게
람홍색대국기가 나뭇긴다
300 명 중고생들의 기발이

나는 람색, 나는 홍색
천을 쥐고 추켜올린
팔과 팔

난 백색이야 난 오각별
우로 아래로 요동치는
몸과 몸들

우리의 진정 보시라고
람홍색대국기가 나뭇긴다

우리 아들딸들의 기발이

역두에서 빼라도 나누고
술한 서명도 모은다 들었네
부청앞에도 함께 섰었지

기특하다고 흐뭇이
용타고 울컥
뜨거워지는 가슴

해마다 보고본 광경에
오늘도 녀을 잃는다
눈을 떼지 못해 지켜본다

그래 나뭇기거라
우리 미래들의 기발이여
펼럭펼럭 나뭇기라고

변치않을 한마음을 담아
래일도 모래도
앞날까지도

우리의 국기여
나뭇기라고

가사

빛나라 니시고베 !

-니시고베조선초급학교창립 80 돛을 기념하여-

심 달 야

우리 자랑 끝없어라 우리 미래 찬란하여라
선대들의 소원이 교정마다 어려있네
해빛밝은 교실에 우리 말 넘치고
배움의 웃음소리 그칠줄 몰라라
아, 빛나라 4.24 의 고향
소리여 모여라 울려퍼져라
동포동네 하나의 대가정
니시고베초급

우리 자랑 끝없어라 우리 미래 찬란하여라
동포들이 지켜준 아름다운 보금자리
대진재의 흔들림도 용감하게 이겨내고
희망의 웃음소리 그칠줄 몰라라
아, 빛나라 4.24 의 고향
소리여 모여라 울려퍼져라
동포동네 하나의 대가정
니시고베초급

애국애족의 전통 목숨바쳐 지켜온 력사
우리모두 고스란히 대대로 이어가리
친근한 동무들 살뜰한 선생님
우리의 종소리 영원히 울리리라
아, 빛나라 4.24 의 고향
소리여 모여라 울려퍼져라
동포동네 하나의 대가정
니시고베초급

아, 빛나라 니시고베초급

교과서 고향집에서

김 성 철

교과서 맨 꼬트머리에 새겨진
이름이며 주소는 눈에 익었어도
내 나이 쉰다섯에
오늘에야 너를 찾아왔구나

《학우서방》

우리 교과서의 고향집
네 이름 찍힌 교과서 보풀이 일도록 번진
배움의 시절 떠올라 절로 머리 숙여지는 곳

이 나라 모진 풍파 헤쳐 펴낸
책들의 무게만큼이나 듬직하게 솟은
너를 보니 내 마음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코노래도 흥얼흥얼 사옥에 들어섰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성큼 올라
사무실을 찾아가려는데
아이쿠 맙소사

그만 발을 헛디더 넘어져버렸다네

눈을 밝히니 안겨오는

새세기 인재 키워갈 큰 뜻 담은 구호들

색이 바랜 벽이며 기둥이 좁다하게 나붙어

나에게 말해주는듯

-네 지식의 성들은

새세기에 걸맞게 새롭거나 하느냐?

아, 교과서 고향집 년말에 찾았더니

덕담대신 종아리를 맞았구려

선달이면 하게 되는 말

서 정 인

한때 잠잠히 지낼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한해를 되돌아본다면서
끼리끼리 똘똘 뭉치는 자리에
오라고 하는대로 나가서는
마주보며 잔을 기울인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흥에 겨워
네가 더 로고가 많았다면서
서로들 다시 권하게 되는데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는
하는 말은 대체로 같아져
《조선이... 이랬으면,》
《한국에 가봤더니...》

전주에 모여앉은 자리에서도
바로 그랬다

그러다 마무리할무렵이면
너나없이 하는 말, 하게 되는 말

-우리 이렇게, 같이 조선에 가봤으면...
-그래, 꼭 한번은,

술기운이 좀 도니
일상이라면서 씹어삼켰던
몸과 맘에 안 받아들여지는것들
트림하듯 내보내고서야
깊은 곳에 있는 말이
올라오는가보다

속으로 나이들을 따져가면서
오는 해의 목표로 다시 삼는다
삶의 이정표처럼

땡그랑소리 들을 때마다

김 명 혜

땡그랑 ! 해마다 오고가는 《라인》
7년전 조국의 품에 안긴
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이
오늘도 회포를 나누는 메세지

전국에 흩어져 살며 사업하여도
학교소식은 물론
생신이나 반가울 때 땡그랑
귀염둥이 예쁜 사진도 땡그랑

순간 조국방문의 나날
밤새도록 나눈 뜨거운 이야기며
전국의 학교이야기에 눈빛 반짝거리며
조국에서 다진 결심 다시한번 떠오르네

메세지와 함께 날아온
대동강맥주 《이라스트》
하하,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와

한손 추켜올려
축배잔 올리자 《화이팅》

비록 《라인》이지만 세월과 더불어
정이 오고가고 힘도 북돋아주네
땡그랑소리 들을 때마다 느끼는 이 마음
아, 조국의 푸른 하늘 그려보네

장하다, 동포사회의 기폭제들 !

- 《하나조노》 도쿄도예선 결승전에 립한

투사들에게 보내는 시 -

강 명 세

《One for all,

All for one》

15 명이 몸과 마음 하나로 하여
오직 적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듬직하고 우람한 선수도
키 크고 날랜 선수도
너나없이 제 초소에서 한몫을 다한다

그날 동포들은 보았네
외국인선수 거느린 강팀 《메구로》 전
결승전의 마지막 순간을

사정없이 덤벼드는 상대팀선수와의
치열한 육박전
계속되는 실점에도
누구하나 물러서지 않고

15 명의 투사들은
끝까지 한마음으로
오직 적진을 향했다

타원형공을 가지고
그들이 한덩어리가 된 순간
온 동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한걸음 또 한걸음...
셋이서 안되면 넷이서
넷이서 안되면 다섯이서

끝내 5 점을 얻은 그 순간
동포들은 얼싸안고 울고 웃고
환성을 올렸다

경기장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온갖 어려움에도
굴함없이 전진해온
우리 동포사회의 모습였네

이역땅 일본에서도
 꽃꽃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각오와 억센 투지가
우리에게 앞날의 확신을 안겨주었네

하여 나는
장한 투사들에게 말하련다
너희들은
동포들을 묶어세우고
동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동포들의 마음 불러일으킨
《동포사회의 기폭제》라고

응원기발

채 덕 호

선수들아
이 응원기발이 보이는가
오사까조고투구부
전통의 경기복과 똑같은
흰 색깔에다 검붉은 색깔을 새긴 대기발이

중급부시절
함께 땀흘린 나날들이 떠오르는구나
고급부가 되어
음악의 길을 택한 나를
선두에서 응원해준 너희들이기에
오늘 손수 만든 이 기발로
나밖에 못하는 응원을 하련다

좌우로 흔드는 이 기발따라
조고생모두
아니 우리 동포들모두가
노래를 부른다
성원을 보낸다

아무리 상대가
크고 강하더라도
이 땅에 힘있게 버티며
앞으로 나가는 선수들이여

그 모습 볼수록
손발이 아무리 아파도
같은 마음이 되어
응원기발
더 높이 더 힘있게 휘날린다

이 기발이 보이는가
펼쳐지는 이 소리가 들리는가
내가 높이 든 이 기발은
우리모두의 한마음이거니

잊지 말아다오
인원수는 적어도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너희들을 지켜보는 내가
아니 우리모두가

이 응원기발 높이 추켜들고
함께 싸우고있다는것을

(전국고등학교투구선수권대회 오사까지구예선
결승전을 응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용돈

김 애 미

방을 정리하다가
바지호주머니에서 나온
아버지의 용돈

어머, 쓰러진채 빨래도 못하고
그냥 있었네
이 돈으로 한번더
좋아하신 《빠친꼬》 할수 있었지

아니, 《빠친꼬》는 그만두었다면서
그 언제나 손에 들고오신
비닐구렁지에 가득찬 과자
상품(景品)이 아니였을가?

돌아가신 후에도
때를 기다린 호주머니속
아버지의 용돈
마지막 손자의 과자값일가

비행장의 오각별

김려우

학교의 《대표》로 떠나는
두 학생을 보내주려
《어머니회》가 나섰구나
잘 가라는 인사말보다 먼저
반짝이는 공화국기 펼쳐보이며

이역에서도 몇몇이
배우고 일하는 《우리》 누구나
가슴속에 고이 안고사는 오각별
오늘은 높이 들며

이 기발없이는
차별과 괴롭힘을 버텨내질 못했기에
이런 날엔 꼬옥
우리가 누군지 온 세상이 알도록
펼 펼 펼 나뭇겨야 된다는
그 마음도 번쩍인다

국기가 지켜주는 학교에서 배워도
이 기발 길거리에서 펄럭이면
어린 학생들의 여린 가슴에
깊은 상처만 안기는 이곳이건만

래일이면 가닿을 조선에서는
온몸이 기발되어 활개쳐 다니거라
백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맞받아
민족교육의 기개 푸른 하늘에 펄럭이여라,
한껏 들이쉬고 슬기를 키우거라

그래서 너희네 모습으로
《대집단체조》 세대 그들처럼
오각별 아로새겨진 기폭을 따라
오늘도 척척척 대를 이어
웃으며 나아가는 《우리》 충정 알려주려마

애들아, 알겠느냐
제손으로 만든 기발을 들고 비행장에 달려나온
우리 학교 《어머니회》의 이 당부는

백열세명을 보내는
어머니며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전국의 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란다

설 날

김 윤 순

별들의 무도회인듯
이 별이 돌고돌아
한번 더 원돌기를
시작할뿐인데도
별나라 조그만
사철과 같은 우리들은

빨고 넣고
즐고 닦고
장보고 삶고
씻고 썰고
굽고 지지고
무치고 부치는데
정신이 없다

여느때처럼
아침이 오고
밤이 올뿐인

평범함 하루인데도

(《웃프구나》※…)

헛웃음 짓는 나를 보고

해님처럼 방긋 웃은

작은아들이 말한다

《엄마, 행복해?》

—너는?

《난 행복해!》

※ 《웃프다》~웃읍다+슬프다 (造語)

청춘이 가는 길

김 진 성

역구내에 서서히 들어서는 열차
《구장》

눈에 익은 지명앞에 멈춘다
가슴을 젖히고 승강대문을 여니
열차원처녀의 목소리 들려와라
정차시간은 10 분이라고...

잘 있었느냐
나의 청춘의 한구간이 새겨진
못잊을 곳이어
지금도 너의 역구내 활기로이 봄빈다만
알아볼수 있느냐
몇년전 바로 여기에
건설자의 배낭메고 내리던
애젊은 그날의 청춘을

인사드리노라
저너머 높이 솟은

청천강의 웅장한 언제들에
완공의 그날처럼 뜨거운 경례를!
너를 쌓으며 땀도 많이 흘린 청춘이
오늘은 이렇게 열차의 승강대에서
너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곱젖나니

오래도록 회포를 나누기에는
정차시간이 너무도 짧아
열차에서 내려 걸어가고싶구나
그날의 위훈을 추억하며
그때처럼 맑은 물에 발잠그고
못잇을 모든것과 속삭이고싶은 마음
허나
당의 부름 받들고 또다시 먼길을 가는
나는 청년건설자!
드바쁜 청춘의 행로우에서
오래 머물수 없는 이 몸이거니

이제 기적소리 울리며
열차는 떠나가리라
뜨거운 추억을 뒤로 남기며

또 나의 청춘이 깃든
사랑하는 평양과 삼지연, 신의주...
못잊을 지명들에 깃든 사연을 불러일으키며

어딜 가나 낯설지 않은
내 조국의 무수한 역들
좋다! 벗어나는 지명마다 정차시간
이처럼 짧다 해도
더 빨리 달려야 할
조국의 힘찬 걸음을 두고 피끓이는
나는 청춘!

기적소리 울리며 열차는 출발을 서두른다
가자! 당이 바라는 곳이면
마지막철길이 끝나는 깊은 산골역이라도

다시 개척의 배낭메고
웃으며 내릴수 있는 나는 청춘!
자! 청춘이여, 생활이여!
또다시 앞으로!
지나온 모든것 위해 맞이할 모든것 위해

(조선거주)

스승의 뜻

양 금 녀

선생님이 떠나가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뵈옵던 그때
병마를 꼭 이기겠다는 선생님이셨는데

《설을 쇠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하직인사 드렸더니 당황하시는듯 동요하시는듯
미심쩍게 알았다, 기다린다고 얼버무리신
어설프던 그 표정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보에 접한것은 설을 맞기 전이었습니다
믿고싶지 않았으나 각오는 이미 됐었나 봅니다
당장 달려가 꽃 한송이 드리지 못했어도
조국땅에서 선생님을 그리며 애도함은
오히려 저에게 사명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선생님과 함께 오르던 만수대
오늘은 두분을 모신 언덕을 오를 때엔

청춘의 그 나날에 다져진 마음
순결하고 진실하고 견결하던 그 마음
더욱 숭엄히,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당중양뜨락에서 영광을 지냈을 때도
조국의 품속에서 꿈같은 나날을 누릴 때도
일본에 와서 아이들에게 조선의 뉘 새겨줄 때도
선생님은 늘 제 가슴속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렇듯 복된 제 삶이 있는것은
선생님, 바로 당신이 계셨기때문입니다
이역땅 새세대들에게 우리 말과 글 가르치며
조국을 따르는 길, 민족을 지키는 길
한생토록 변함없을 이 길에 세워주신 선생님

저뿐만 아닌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끝없는 계승의 길 닦아주신 선생님
오늘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선생님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국어교과서 펴며 우리 글을 읽습니다
조선말사전 펼치며 우리 말을 익혀갑니다

선생님의 유고집을 번져가면서
저는 가슴에 손을 댑니다
선생님만큼이나 우리 말을 사랑한다고
제가 감히 어떻게 말할수 있는지
타협없이 탐욕스럽게 정열적으로
우리 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선생님은 우리 말에 대한 사랑만큼
후대들에게, 이 제자에게
깊고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대학시절에도 졸업후에도
선생님 주신 은정은 헤아릴수 없는데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값을 길은 오직 하나라는것을
선생님처럼 우리 말을 사랑해야 함을
선생님처럼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는
앞날의 후비대를 키워가야 함을

오직 그 길만이
선생님의 삶을 이어가는 길임을
오직 그 길만이
선생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길임을...

105 호 후기

시지 《중소리》가 101 호이후 전자판으로 넘어오면서 편지부에서는 필자분과 독자분들에게 연간 1,000 엔씩의 모금을 부탁하여왔다. 지난 1 년동안 많은 개인과 여러 집단, 기관이 찬동해주시어 《중소리》편집발행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다. 《중소리》시인회의 이름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이러는 여러분들의 고무격려가 있어 생각하게 되는것은 다문 몇권이라도 101 호이후를 해마다 책으로 묶어서 우리 《도서관》이며 《자료실》에 비치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다. 필자분과 독자분, 지지찬동해주시는 모든이들의 의향이 담겨지도록 심사숙고해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글을 써내기 위해 나날이 심사숙고하리라는것은 물론이고. (인)

詩誌 中 小 里

発行	《중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co.jp		
発行日	2026 年 1 月 15 日 (日本・東京)		

2026 년몯을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디다

시지 《중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년간 1,000 엔의 캄과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리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関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십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

1 0 5 호